

▲ 구미공장

## 삼성반도체통신

첨단 테크놀러지를 선택, 개발해 가는 데는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어려움도 많다.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또 앞선 주자들의 족적을 피해야 하며 빨리 그들의 어깨를 짊어줘야 경쟁력이 생기는 등 어지간한 의지로는 힘들다. 그러나 첨단산업이 주는 기대감은 의지있는 이들로 부터 보다 더 적극적 투자를 유발케 한다. 반도체는 물론 통신기기 분야도 그런 의미의 벤처기질이 필요하다. 삼성반도체통신의 경우도 이같은 사업에 사운을 걸고 있는 대표적 기업 중의 하나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가운데 가장 중점 두어지는 부분이 연구개발 투자다. 여기에는 기술인력 투자도 해당 되겠으나 기술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렵고, 자금면에서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삼성반도체통신은 연구개발 부문에 총 1,46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중 반도체사업에 975억원, 통신사업에 480억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이러한 액수는 웬만한 중견기업 몇을 세울 수 있는 규모로 사업에 거는 기대가 어지간 하다거나 그를 뒷받침할 자금력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술 경쟁시대의 경쟁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투자에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삼성반도체통신은 연구개발 투자에서 수많은 첨단제품을 자체 개발해 냈다. 제품화에까지 성공, 기술력을 과시한 것으로 잘 알려진 VLSI 반도체 64K, 256K, IMD 램이 있고, 마이크로 컴퓨터 SSM-16, 워크스테이션, 사설전자교환기 센터리 시리즈와 국설전자교환기 TDX-1S, TDX-2, 보급형 FAX 등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현재 4MD 램을 오는 91년까지 양산한다는 목표로 개발중인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만은 국내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사설전자교환기와 LAN 등 시스템사업에서도 선두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획득해 놓은 국내외 특허도 많다. 80년 이후로 얻어낸 것으로는 컴퓨터 선택적 시동회로, 반도체 소자의 적극 변색 방지를 위한 식각방법, 무선조정용 모터구동을 위한 선형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열 검출 차단회로 등 25종에 이른다. 이중 4개는 미국·영국·대만에서 얻어낸 것이다.

이외에 실용신인도 CMOS용 전압 배제회로를 포함 14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력에 힘입어

사업 또한 급성장 했다. 지난해 매출이 3,923억원이었고, 85년 2,611억원, 84년 1,789억원을 기록하는 등 7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9.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0년전인 78년 말의 외형은 겨우 1억4천만 원에 불과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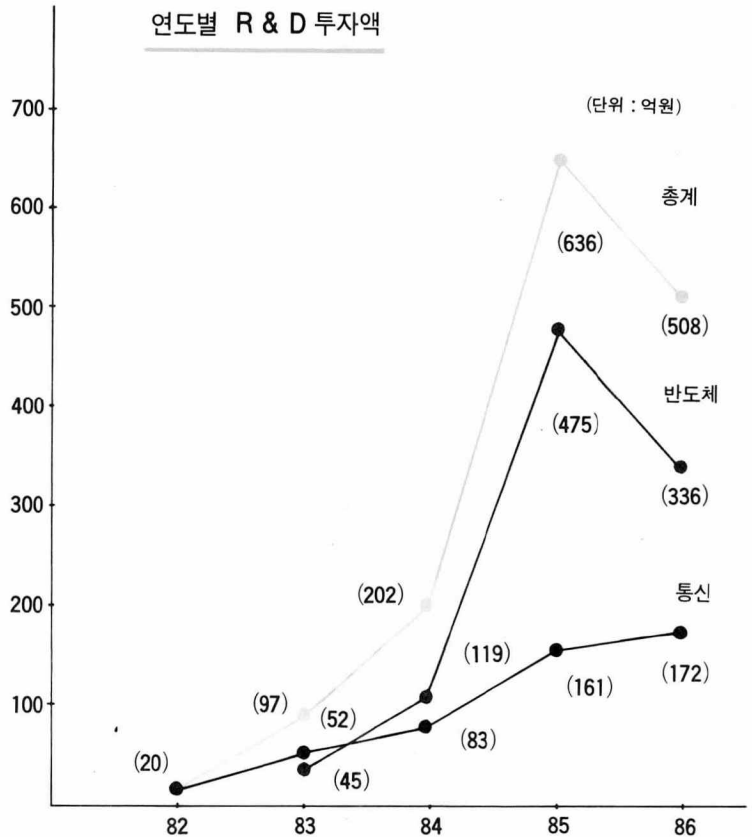
또한 수출신장세도 주목할만 하다. 82년부터 4년간 평균 203.9%라는 기록을 남겼다. 수출부문의 이러한 성장은 전체 매출신장율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같은 기간 총 매출신장율 54.75%에 비해 수출신장율은 203.9%로서 3배 이상 더 빠르게 성장, 사업이 수출우위형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1월로 수출 1억달러를 기록한 통신부문의 올 매출목표는 2,971억원이다. 이 가운데 1,967억원을 9월말로 달성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력도 문제가 되겠으나 첨단산업의 생존력은 바로 기술이 받쳐주는 제품에 있다. 삼성반도체통신은 내년에도 통신연구소를 통해 교환기 분야의 수출형 교환기 소형교환기 음성우편장치 디지털 키폰원격검침장치 홈오토메이션을 무선 전송 분야의 카폰 패이저를, 화상처리분야의 보급형 FAX 소형 FAX, 고속FAX(G4급)를, 부품으로 감열기록소자, 요소기술로서 화상정보감축기술 등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4MD램 등을 위해 올 예상매출액의 12.9%에 이르는 6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와 아울러 1MD램 및 현재 개발중에 있는 4MD램의 생산라인 건설투자재원으로 2,470억원을 따로 책정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으로 부터 있었던 제조

연도별 R & D 투자액



사건으로 제3국의 메모리 분야 반도체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성이 큰 것인가를 실감케 되었다. 피소 당사자인 삼성반도체통신은 제조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로열티 지불을 조건으로 원만한 타결을 보게되어 한시름 덜었다. 이 결과 반도체사업은 앞으로 별 지장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삼성반도체통신의 주 수익은 통신부문에서 얻어지고 있다. 반도체는 아직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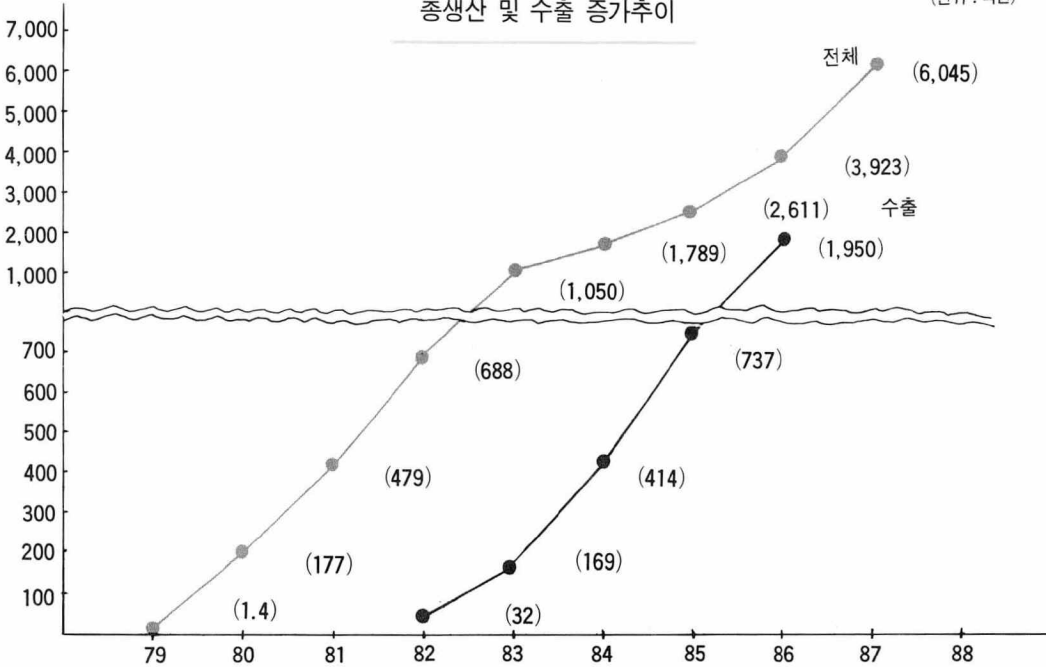
77년 말 미국 GTE와 합작으로 삼

성 GTE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통신기기사업은 지난해 말 만 10년을 기념했다. 삼성 GTE는 한국전자통신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도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통신기기사업은 교환기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안정적이긴 하나 시장의 한계가 있는 교환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교환기 이후 전화기 등 단말기 시장에 참여한 데 이어 꿈의 통신이라 불리우는 광통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수용수단을 넓혀 주고 있는 데이터 통신기기(FAX, 비디오텍스, 텔

총생산 및 수출 증가추이

(단위 : 억원)



'88년 전략사업 및 상품

구분	사업 및 제품	내용
통신제품	TDX (TDX-IS, TDX-2)	국내개발용 전전자식 교환기
	S1240	ISDN용 전전자식 교환기(수입기종)
	패이저(무선호출기)	수출지역 다변화, 신제품 개발
	기타 광전송기기	제품개발
시판	FAX(COFAX-40/COFAX-400 시리즈)	가격 및 기능의 차별화
	키 폰	시장다변화, 기종다양화
	PABX(SDX시리즈, CBX기종)	수출용 모델개발
	카 폰	신제품 개발, 양산, 수출
	전화기	무선전화기, 자동응답전화기
	HA (Home Automation System)	신규참여 사업
컴퓨터	미니 컴퓨터	신기종 개발
	마이크로 컴퓨터(SSM-32/SSM-32/SSM-16)	기능확대 및 영업강화
	PC	신기종개발(랩톱 PC)
	기타 주변기기(모니터, 프린터)	-
시스템	시스템 LAN 시스템	기존 시스템 보완, 영업강화
	PC-LAN	-
	자동창고 기타 시스템사업	문서보관시스템 등 신규 아이템 개발

리텍스, 모뎀)를 생산하고 있고, 컴퓨터 및 시스템사업으로 16, 32비트 범용 마이크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응용시스템으로 「3A」(FA, OA, HA)를 향한 종합생산 관제시스템, 무인자동화창고, LAN 등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화기의 경우 금성통신과 동양정밀이 선발로 10년 이상 구축한 아성에 도전했고, 포철에 설치한 LAN은 이 분야 국내 최초 성공적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시 광양만 제철소의 무인자동화창고도 공장자동화의 선두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삼성반도체통신은 올림픽 통신기 지원업체로서 교환기 및 통신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술력, 이를 키워가는 것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삼성반도체 통신은 곧 1조원 매출을 넘어서고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